

泰安 대섬 海底 出水 高麗靑磁의 양상과 제작시기 연구

최명지*

- I. 머리말
- II. 泰安 대섬 海底 出水 高麗靑磁의 조형적 특징
 - 1. 기형과 문양
 - 2. 번조 받침
- III. 泰安 대섬 海底 出水 高麗靑磁의 제작시기
 - 1. 해저 유적 청자와의 비교
 - 2. 중국 가마터 출토품과의 비교
 - 3. 목간 내용과 청자의 제작시기
- IV.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10년 사이 서해안 일대에서 13건 이상의 고려시대 침물선이 조사되어 고려청자 연구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섬 해저에서는 청자 운송 전용 선박으로 추정되는 침물선이 확인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2만 3천여 점 이상의 양질 청자가 출수되었다.¹ 특히 청자와 함께 청자의 생산지와 유통 과정 및 소비 주체를 추정할 수 있는 목간이 최초로 발견되어 주목된다.²

대섬 청자는 그 학술적 가치로 인해 처음 발견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

1 태안 대섬 해저 출수 고려청자는 이하 '대섬 청자'로 지칭하겠다.

2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高麗靑磁 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본문』(2009), p. 370. 대섬에서 출수된 총 34점의 목간에서는 '耽津'·'京' 등의 地名, '隊正'·'大卿' 등의 官職名, '安永'·'仁守' 등의 人名이 판독되었다. 이러한 목간은 선박에 실려 있던 청자의 발신자와 수취인 및 화물량 등을 기록한 물표로 볼 수 있다.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제작지와 제작시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³ 그러나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대섬 청자 가운데 특정 기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대섬 청자의 제작시기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목간 내용 중 “耽津[강진]에서 京[개성]으로...”라고 하여 청자의 생산지를 강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강진 지역 가마터 출토품과의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시도되지 않아 제작양상을 살피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⁴

필자는 2009년부터 2년여 동안 대섬 출수 청자에 대한 정리를 담당하였고, 아울러 보고서에 소개되지 않은 청자를 포함한 3만여 점에 이르는 개개 유물의 양상을 실견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섬 청자와 강진 용운리 10호 가마터 출토품을 비교하여 기형과 문양, 번조 반침 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대섬 이외의 해저 유적 출수품, 중국 가마터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제작양상의 특징을 살피고, 대섬 청자와 동반 출수된 목간 내용의 인물과 간지의 연대를 추정하여 제작시기를 밝혀 보고자 한다. 대섬 청자의 양상과 제작시기를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편년 자료가 부족한 고려 중기 청자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泰安 대섬 海底出水 高麗靑磁의 조형적 특징

대섬 해저에서는 대접·접시·완·잔·발우·합·유병·소호·주자·향로·벼루·항·니형(용도

³ 윤용이, 「태안 대섬 해저 출토 고려청자의 성격」, 『고려청자 보물선 강진, 태안, 그리고...』(강진청자박물관·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8), pp. 189-195; 同著, 「고려청자의 생산과 소비, 향로」, 『국제학술심포지엄 청자보물선 뱃길 재현 기념』(강진군, 2009), pp. 6-13; 장남일, 「漕漕과 도자생산, 그리고 유통: 海底弓腸 고려도자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제22호(미술사연구회, 2008), pp. 185-186; 박지영, 「고려시대의 청자발우-태안 대섬 출토품을 중심으로-」, 『고려청자 보물선 강진, 태안, 그리고...』(강진청자박물관·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8), pp. 196-204; 조은정, 「태안 해저인양 청자의 성격과 제작시기」, 『고려청자 보물선과 강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강진군, 2009), pp. 238-243; 同著, 「태안 대섬 해저인양 소형접시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양상」, 『해양문화재』 제4호(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pp. 75-122; 이희관, 「태안 대섬 해저인양 靑瓷火爐形香爐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해양문화재』 제4호(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pp. 7-74; 임진아, 「태안 대섬 출토 음각앵무문·양각연판문 대접·접시의 특징과 제작시기 고찰」, 『해양문화재』 제4호(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pp. 123-178.

⁴ 대섬 청자는 용운리 10호 가마 이외에도 용운리 지역에서 확인되는 일부 지표 수습품과 유사하여 용운리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사당리 43호 가마에서 대섬 청자와 유사한 청자편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대섬과 사당리 43호에서 출토된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은 같은 도법을 사용한 듯 문양이 동일하고, 기형과 굽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강진청자박물관, 『강진 고려청자의 최근 발굴조사 성과·특별전』 강진청자박물관 학술총서 17(2013), p. 44의 〈도 28〉과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高麗靑磁 寶物船 태안 대섬 수증발굴 조사보고서-도판』(2009), p. 50 〈도 29〉 참조).

미상) 청자 등이 출수되었다.⁵ 이 가운데 주요 기종인 대접·접시·완·잔을 용운리 10호 가마에서 출토된 청자의 조형적 특징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대접 청자의 제작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⁶ 강진 용운리 10호 가마의 경우 유물의 퇴적층은 크게 하층인 I층과 상층인 II층으로 구분된다. 용운리 10호-I층에서는 대접 청자와 비교할 만한 기종이 출토되지 않았으며, 비교 대상이 되는 유물은 10호-II층부터 보인다. 용운리 10호-II층의 가장 큰 특징은 층위별로 확인된 번조 받침에 따라 <가>유형(내화토 빛음), <나>유형(모래 섞인 내화토 빛음), <다>유형(규석)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유형 사이에는 시기적인 선후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⁷ 대접 청자가 용운리 10호-II층의 <가>와 <나>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본 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⁸

1. 기형과 문양

1) 대접

대접 <청자음각앵무문대접>은 측사면이 곧게 뻗어 올라가 구연 끝 부분까지 직립하며, <나>유형 <청자음각앵무문대접>은 이와 달리 옆선이 둥그스름하게 올라서서 구연이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형태를 보인다. 대접 대접의 내저원각은 6cm 정도로 저경과 비슷하고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지만 <나>유형 대접의 내저원각은 3cm 이하로 저경보다 작고, 안쪽까지 깊게 눌러 제작되었다.⁹ 대접 앵무문·연판문 대접의 저경은 5cm 정도로 최대 5.8cm를 넘지 않지만 <나>유형 앵무문·연판문 대접의 저경은 5.5cm 정도로 최대 6.2cm를 넘는 것도 있다(표 1). 10호-II층 출토 청자의 저경은 <가>에서 <나>유형으로 가면서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어, 굽의 크기와 형태에서 볼 때 대접 청자는 <나>유형보다 <가>유형 대접과 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대접 앵무문·연판문 대접은 굽의 높이가 0.6cm 정도이며 굽 안 바닥면을 0.5~0.6cm 정도 깊게 깎아낸 內傾한 다리굽이다(표 1). 대접 청자는 높이가 낮은 굽의 안쪽 면을 깊게 깎아 내어 <가>유형 대접류에 보이는 굽의 특징과 유사하다. <나>유형 앵무문·연판문 대접 굽 높이는 1cm

5 대접 청자의 수량은 보고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은정, 앞의 논문(2011), p. 81 (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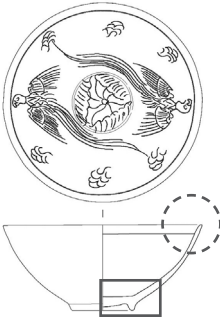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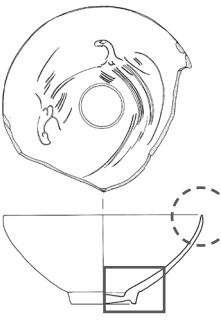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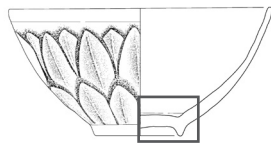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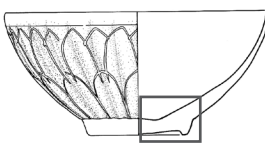
6 대접 청자와 용운리 10호-II층 출토 청자의 형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각각의 <표> 안에 기재하였다.

7 國立中央博物館,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 本文編』(1997), p. 223.

8 본 논문에서 용운리 10호-II층 <가>유형과 용운리 10호-II층 <나>유형은 이하 ‘<가>유형’과 ‘<나>유형’으로 지칭하겠다.

9 國立中央博物館, 위의 보고서(1997), pp. 105-106.

표 1 대섬과 용운리 10호 출토 앵무문·연판문 대접 기형과 문양 비교



문양	출토지	① 대섬 해저출수	② 10호-II층 <나>유형
앵무문			
		높이: 7.9cm, 구경: 18.2cm 저경: 5.6cm, 굽 높이: 0.6cm 내저원각 지름: 6.1cm, 대접Ⅲ형	높이: 7.4cm, 구경: 17.0cm 저경: 5.8cm, 굽 높이: 1.0cm 내저원각 지름: 3.0cm 이하, 鉢O형
연판문			
		높이: 8.0cm, 구경: 16.4cm 저경: 5.4cm, 굽 높이: 0.6cm 내저원각 지름: 5.4cm, 대접Ⅲ형	높이: 7.8cm, 구경: 16.2cm 저경: 6.2cm, 굽 높이: 1.0cm 내저원각 지름: 3.0cm 이하, 鉢O형

정도이고, 굽 안쪽 높이는 0.2~0.3cm 정도로 굽 안 바닥을 얇게 깎아 차이를 보인다.

대섬 <청자음각앵무문대접>의 문양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앵무새의 표현에서 짧은 목(표 1-①)과 긴 목(표 2-①)의 두 종류가 확인된다. 같은 공간 안에 긴 목과 짧은 목을 가진 앵무새를 동시에 장식한 대접도 보인다(표 2-②). 그러나 <가>유형에서는 앵무문이 출토된 바가 없고, <나>유형 대접의 앵무새는 대부분 긴 목만 확인된다. 언제부터 청자에서 앵무새의 목이 길게 표현되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대섬 청자가 제작되던 시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섬 대접의 앵무문은 기존에 소개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앵무새의 포치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과 달리, 머리와 몸체는 구연 쪽을 향해서 있고 꼬리털만 돌아가는 모습이 매우 독특하다(표 1-①). 대섬 앵무문 중에서도 접시와 같이 높이가 낮은 기종에 장식되는 경우 일반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도 있다(표 14-①). 대섬 대접·접시에 장식된 앵무문은 <나>유형 앵무문과 다르게 문양이 간략화된 것이 없고 장식적인 운문이 동반 시문된다(표 1-①, 표 2). 대섬 앵무문은 독특한 포치와 목의 형태, 보조 문양으로 볼 때 앵무문이 정형화되거나 간략화되기 이전인 시문 초

표 2 대섬 해저 출수 앵무문 문양 비교

① 긴목 앵무문	② 짧은목과 긴목 앵무문
	
<p>〈청자음각앵무문대접〉 높이: 8.0cm, 구경: 17.6cm 저경: 5.4cm, 굽 높이: 0.6cm 내저원각 지름: 5.7cm, 대접Ⅲ형</p>	<p>〈청자음각앵무문대접〉 높이: 8.5cm, 구경: 18.1cm 저경: 5.2cm, 굽 높이: 0.6cm 내저원각 지름: 5.9cm, 대접Ⅲ형</p>

기의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고려 중기 청자 연구에서 앵무문·연판문이 장식된 대접은 10호-II층 〈나〉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대표적 기종이다.¹¹ 이는 앵무문·연판문 대접이 〈나〉유형에서부터 확인되었기 때문이며, 대섬 앵무문·연판문 대접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그 기형과 문양을 〈나〉유형으로 인식하였다.¹²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기형은 고려되지 않은채 〈나〉유형과 문양만을 비교했다는 한계가 있다.

대섬 〈청자음각앵무문대접〉과 〈나〉유형 〈청자음각앵무문대접〉의 기형·문양을 함께 비교 분석하면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대섬 대접은 〈나〉유형 대접과 비교하면 문양 소재가 같다는 것 외에 직립형 구연, 6cm 내외의 내저원각 크기, 상대적으로 얇고 날렵한 동체, 내경한 굽 형태, 굽 높이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섬과 〈나〉유형 앵무문·연판문 대접에서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은 구연의 형태와 내저원각의 크기이다(표 1). 〈가〉유형 접시의 경우 연판문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앵무문·연판문이 장식된 대접 역시 〈가〉유형에서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¹⁰ 대섬 〈청자음각앵무문대접〉 중에는 구경이 넓고 높이가 낮은 화형 대접(〈가〉유형 鉢K형식)에 앵무새와 장식적인 운문을 시문한 예도 2점이 확인되었다. 〈나〉유형 앵무문은 대접의 경우 옆선이 등글고 구연이 내만한 기형에서만 보이며, 문양 표현이 간략하고 보조 문양인 운문은 생략되거나 곡선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¹¹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혜안, 2006), pp. 140-142, pp. 160-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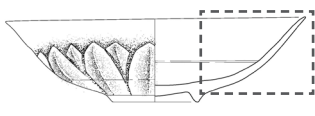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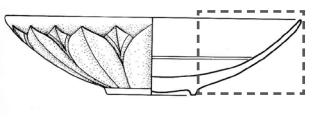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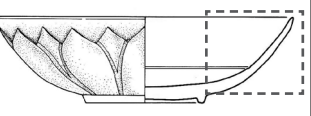
¹² 임진아, 앞의 논문(2011), pp. 134-137.

2) 접시

대섬 <청자양각연판문접시>는 저부에서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구연까지 오르는 형태로 동체의 두께가 얇고 날렵하다(표 3-①). 연판문 접시는 <가>유형에서 <나>유형까지 계속해서 보이지만 각각의 유형은 기형·문양의 시문 방법·저경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어 중요하다(표 3-②,③).¹³ <나>유형 <청자양각연판문접시>는 측사선이 둥그스름하게 오르며 구연에 이른다. 대섬 <청자양각연판문접시>의 저경은 5cm 이하로 <가>유형 연판문 접시와 비슷하며, <나>유형 연판문 접시는 6cm 내외로 더 크다. 대섬 접시와 <가>유형 접시는 저경이 작기 때문에 저부에서 구연까지의 길이가 길고 측사선은 완만한 사선을 이룬다(표 3-①,②). 반면 저경이 넓어지는 <나>유형은 측사선이 짧아지면서 외면의 곡률이 커져 둥근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경의 크기 변화가 기형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섬 <청자양각연판문접시>는 연판이 대칭되도록 안쪽 면을 살짝 깎아내었고, 연판 끝 부분의 바닥면까지 파내어 전체 문양이 입체적으로 장식된다(표 3-①). 이것은 <가>유형 연판문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다(표 3-②). <나>유형 연판문은 연판 끝 부분의 바닥면을 파내고 전체를 음각선으로 시문하거나 단순한 음각선만을 사용한 것이 주로 출토되어 차이를 보인다(표 3-③).¹⁴ 연판문은 <가>유형에서 양질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나>유형부터는 조질과 양질이 혼재하며 대량 생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섬 대접·접시에서는 <나>유형과는 다르게 <가>유형과 유사한 양질의 연판문만 확인되어 제작 초기의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¹⁵ 대섬 <청자양각연

표 3 대섬과 용운리 10호 출토 연판문 접시의 기형과 문양 비교

① 대섬 해저 출수	② 용운리 10호-II층 <가>유형	③ 용운리 10호-II층 <나>유형
		
<청자양각연판문접시> 높이: 4.5cm, 구경: 16.2cm 저경: 4.6cm, 접시I형	<청자양각연판문접시> 높이: 4.3cm, 구경: 16.0cm 저경: 4.9cm, 鉢Q형	<청자양각연판문접시> 높이: 4.5cm, 구경: 16.8cm 저경: 6.7cm, 鉢Q형

¹³ <가>유형 <청자양각연판문발(鉢Q형)>은 높이가 5cm 이하이므로 접시로 판단하였다.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보고서(1997), pp. 108-110.

¹⁴ 國立中央博物館, 위의 보고서(1997), p.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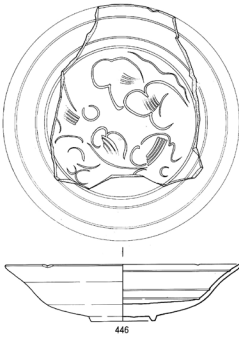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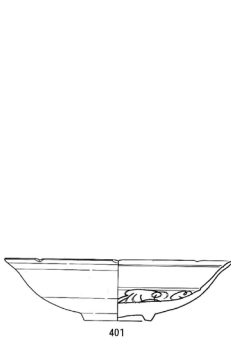
¹⁵ <가>유형 <청자양각연판문접시>는 내저면에 포개구이 된 흔적이 남아있다. 포개구이의 흔적을 통해 <가>유형 연판문이 <나>유형 연판문에 비해 정교하게 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질 상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유형과 같은 연판문 제작 초기 단계에는 양질과 조질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圖版編』(1996), p. 325 <도 316>).

판문접시)는 전체적으로 <나>유형보다 <가>유형 연판문 접시와 더 유사하다(표 3).

대섬 접시는 앵무문·연판문이 장식되는 측선이 완만한 사선을 이루는 유형과 측사선이 짧은 소형의 접시를 제외하면,¹⁶ 대부분이 저부에서 꺾여 구연까지 오르는 折腰形이다. 대섬 절요형 접시는 구경이 18cm 이상으로 비교적 크기가 큰 것이 확인되며 기벽이 얇고 날렵하게 제작되었다. 내저면이 편평하고 넓으며 구연을 'V'자 형으로 오려내어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표 4-①). 접시의 저경은 5cm 정도로 큰 구경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구경이 14cm 이하인 경우에는 저경이 4cm 정도로 더 작아진다. 절요형 접시는 <가>유형에서부터 제작되기 시작하며 <나>유형부터는 기벽이 두꺼워지고 구경이 작아져서 차이가 분명하다.¹⁷

대섬 <청자음각엽문접시>와 <가>유형 <청자음각엽문접시>는 두 개의 잎을 대칭되도록 배치한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표 4-①②). 반면 <나>유형 접시의 엽문은 이미 많이 흐트러져 전자와 차이를 보인다(표 4-③). 대섬 절요형 접시에는 음각 기법을 사용한 葉文·牡丹唐草文·牡丹折枝文·菊花唐草文·菊花折枝文·蓮花折枝文 등의 다양한 문양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음각 문양이 시문된 절요형 접시는 주로 <가>유형에서 확인된다.¹⁸

표 4 대섬과 용운리 10호 출토 엽문 접시 기형과 문양 비교

① 대섬 해저 출수	② 용운리 10호-II층 <가>유형	③ 용운리 10호-II층 <나>유형
		
<p><청자음각엽문접시> 높이: 4.8cm, 구경: 18.5cm 저경: 4.7cm, 접시I형</p>	<p><청자음각엽문접시> 높이: 4.3cm, 구경: 18.2cm 저경: 4.9cm, 접시U-4형</p>	<p><청자음각엽문접시> 높이: 4.3cm, 구경: 15.6cm 저경: 4.7cm, 접시U-4형</p>

¹⁶ 대섬 소형접시는 용운리 10호-II층 출토 소형접시와 비교하면 <가>유형과 조형적으로 더 유사하다. 대체로 12세기 전 반으로 편년되는 일본 키타큐슈[北九州] 지역 유적 출토 고려청자 소형접시와 시문기법이 유사한 점과 중국 가마터 출토 소형접시와 비교하여 그 제작시기를 12세기 중반으로 본 연구가 있다(조은정, 앞의 논문(2011), pp. 80-94, pp. 114-116).

¹⁷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보고서(1997), pp. 14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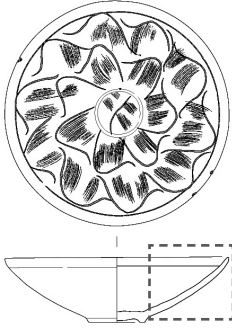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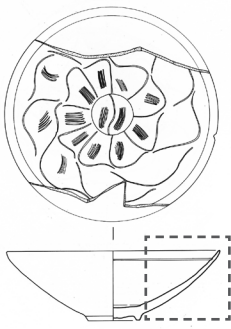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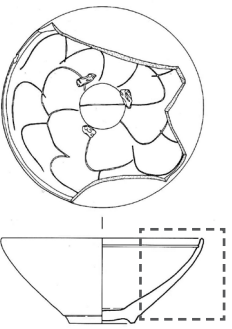
¹⁸ 장남원, 앞의 책(2006), p. 163.

3) 완

대섬 완에는 음각기법으로 장식된 파도문·파어문·국화당초문 등의 문양이 보인다. 대섬 완의 대표적인 기형은 측사면이 완만한 사선으로 오르며 구연부가 직립하거나 살짝 내만한 형태로 내면에는 波濤文(표 5-①)과 波魚文(표 6-①)이 주로 장식된다. 대섬 <청자음각파도문완>은 얇고 날렵하게 제작된 동체와 크기가 <가>유형 <청자음각파도문완>과 유사하다(표 5-②). <나>유형 <청자음각파도문완>은 대섬 완에 비해 기벽이 두껍고, 높이가 높아지면서 측사선이 급한 경사를 보인다(표 5-③). 대섬 <청자음각파어문완>의 경우도 <나>유형 <청자음각파어문완>과 비교하여 구경은 더 크고 높이가 낮아 기형상 차이가 확인된다(표 6-②). 대섬 완의 저경은 <가>유형과 비슷하게 3cm 정도이고, <나>유형 완은 4cm 정도로 더 크다(표 5, 표 6).

대섬 완의 파도문은 둥근 물결과 그 안에 섬세한 세선의 잔물결이 장식되어 <가>유형 완과 유사하다(표 5-①, ②). <나>유형 파도문은 대섬 파도문에 비해 파도문인지 확실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표현이 간략하고 거친 경우가 대부분이다(표 5-③).¹⁹ 대섬 완에서는 파도와 함께 물고기를 표현한 다양한 파어문이 확인되었다. 대섬 파어문의 물결은 파도문과 동일하게 둥그런 산 형태를 보이며, 원각을 중심으로 두 마리의 물고기가 물결을 타고 도는 모습으로 장식된다(표 6-①). 대섬 완 중에서는 물고기가 파도에 몸을 감춘 채 머리만 밖으로 내민 모습을 장식한 예가 확인되었

표 5 대섬과 용운리 10호 출토 파도문 완 기형과 문양 비교

출토지 문양	① 대섬 해저 출수	② 용운리 10호-II층 <가>유형	③ 용운리 10호-II층 <나>유형
음각 파도문			
	높이: 4.5cm, 구경: 14.8cm 저경: 3.2cm, 완II형	높이: 4.4cm, 구경: 15.2cm 저경: 3.5cm, 완F-1형	높이: 5.8cm, 구경: 13.5cm 저경: 4.3cm, 완F-2형

¹⁹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보고서(1997), pp. 118-119.

표 6 대섬과 용운리 10호 출토 파어문 완 기형과 문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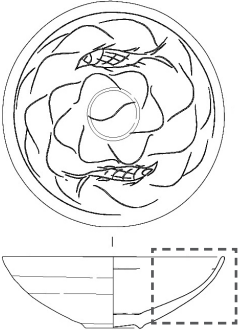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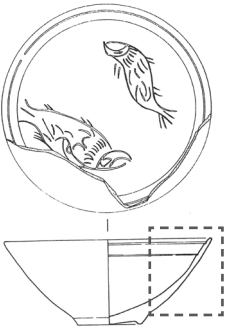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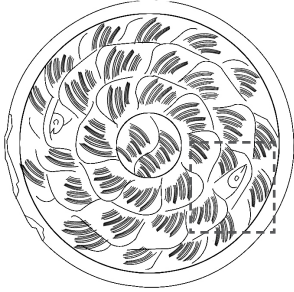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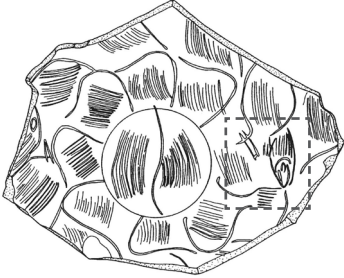
출토지 문양	① 대섬 해저 출수	② 용운리 10호-II층 <나>유형
음각 파어문		
	높이: 4.9cm, 구경: 15.5cm 저경: 3.9cm, 완II형	높이: 6.0cm, 구경: 14.6cm 저경: 4.4cm, 완G-1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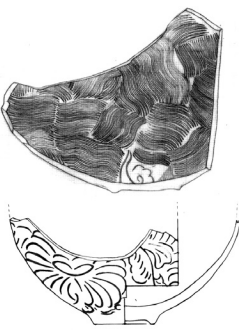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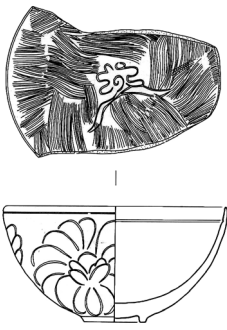
표 7 대섬과 용운리 10호 출토 파어문 완 문양 비교

출토지 문양	① 대섬 해저 출수	② 용운리 10호-II층 <가>유형
음각 파어문		
	높이: 5.4cm, 구경: 15.5cm 저경: 3.9cm, 완II형	저경: 3.4~3.5cm, 완F-1형

으며, 이것은 <가>유형 초벌 편과도 구도와 표현 방법이 비슷하다(표 7). <나>유형 완의 물고기는 대섬 파어문과 비교하여 두 마리의 물고기를 배치한 것 외에는 문양이 간략하고 파도문 역시 생략되어 차이를 보인다.²⁰ 대섬 파도문·파어문은 전반적으로 <나>유형보다 <가>유형 완과 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²⁰ <나>유형 파어문 완은 1점만 확인되어 주로 제작되던 문양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國立中央博物館, 앞의 보고서 (1997), p. 120).

표 8 대섬과 용운리 10호 출토 국화당초문 완 문양 비교

출토지 문양	① 대섬 해저 출수	② 용운리 10호-II층 <나>유형
음각 국화 당초문		
	잔존 높이: 5.5cm 저경: 3.1cm, 완 I형	높이: 6.1cm, 구경: 13.0cm 저경: 3.4cm, 완 추가형식

대섬 <청자음각국화당초문완>은 반구형으로 기벽이 얇고, 저경이 3cm 정도로 작다. 외면에는 국화당초문, 내면에는 파도문이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다. 내면에 세밀한 선으로 장식된 파도문을 짝 채워 장식하고 중앙에 泡沫을 배치한 것은 <가>유형에서만 확인되었다(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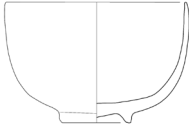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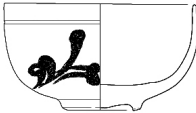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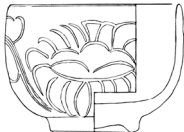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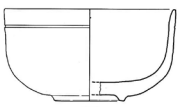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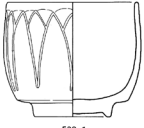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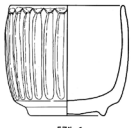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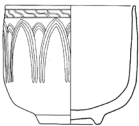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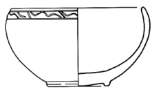
대섬 완은 <가>유형 완과 크기·기형·문양·굽 형태 등의 전반적인 면이 유사하다(표 5~8). 대섬 완은 <나>유형 청자보다 기벽이 얇고 양질로 제작되어 <가>유형과 더 유사하며, <나>유형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기형과 문양은 보이지 않는다.

4) 잔

대섬 잔은 모두 통형으로 기형은 단순하지만 10호-II층 출토품과 비교하면 조형적 차이가 뚜렷하다(표 9).²¹ 대섬 잔은 <가>유형 잔과 같이 구경이 넓고 높이가 낮은 통형 잔만 확인되며, <나>유형의 주요 기형인 구경이 좁고 세장한 통형 잔과 팽이형 잔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²¹ 고려 중기 <청자유개통형잔>의 연구에서는 조형적 특징을 '높이:구경의 비율로 구분하여 높이가 낮고 구경이 넓은 유형을 <가>유형으로, 높이가 높아지면서 구경이 좁아지는 형태를 <나>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전자는 10호-II층 <가>유형 및 대섬 통형 잔과, 후자는 10호-II층 <나>유형 및 유천리 7구역, 진서리 18호 가마 등에서 출토된 통형 잔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청자유개통형잔>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김운정, 『고려 12세기 靑磁 有蓋筒形盞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 양상 - 群山 飛雁島 해저 인양품을 중심으로 -, 『해양문화재』 제2호(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pp. 118-122, pp. 125-126 참조.

표 9 대섬과 용운리 10호 출토 잔 기형 비교

<p>① 대섬 해저 출수</p>			
<p>② 용운리 10호-Ⅱ층 〈가〉유형</p>	 <p>567-1</p>	 <p>527</p>	
<p>③ 용운리 10호-Ⅱ층 〈나〉유형</p>	 <p>552-1</p>	 <p>575-1</p>	 
	 <p>576-1</p>	 <p>573</p>	 

대섬 통형 잔의 저경은 4cm 정도로 최대 5cm를 넘지 않아 작은 편으로 〈가〉유형 통형 잔과 비슷하며, 〈나〉유형 통형 잔은 최대 6.6cm를 넘는 것도 있다. 대섬과 〈가〉유형 통형 잔은 〈나〉유형 통형 잔에 비해 굽 높이가 낮고 굽 안쪽면을 깊게 깎아낸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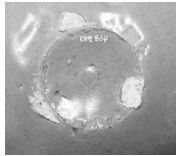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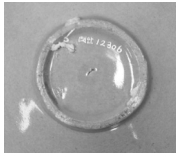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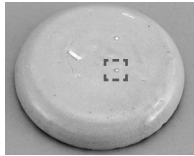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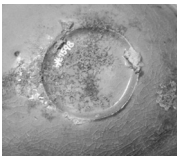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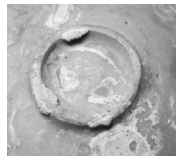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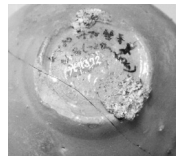

대섬 잔에는 철화초화문 및 〈가〉유형 통형 잔에서만 보이는 음각국화당초문이 확인된다. 반면 〈나〉유형 통형 잔에서부터 활발하게 장식되는 연판문은 보이지 않아 〈가〉유형과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2. 번조 받침

대섬 청자의 번조 받침은 크게 네 종류이며 내화토 빛음, 모래, 규석, 재질을 알 수 없는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번조 받침의 비율을 비교하면 내화토가 8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모래는 8%, 규석은 1% 미만의 소량을 차지한다.²² 대섬 청자는 포개구이를 한 경우 내면에는 모두 내화토 빛음

²² 번조 받침에 대한 비율은 보고서에 기재된 청자 23,758점에 근거하여 굽에 사용된 번조 받침을 수치화하였다(도기 11점과 조선백자 2점 제외). 기타와 판단불가로 나는 것은 수량이 적으며 식물의 재와 조개 껍질류로 추정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물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지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표 10 대섬과 용운리 10호 출토 번조 받침 비교

① 대섬 해저 출수			
	접시-내화토 빚음	완-내화토 빚음	직구형 접시-규석
② 용운리 10호-Ⅱ층 <가>유형			-
	접시-내화토 빚음	완-내화토 빚음	-
③ 용운리 10호-Ⅱ층 <나·다>유형			
	접시-내화토 모래 빚음	잔-내화토 모래 빚음	접시-규석

을 받쳤고 모래를 받친 예는 없다. 다만 굽에서 확인된 모래는 번조 당시 가마의 바닥면에 놓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섬 청자의 번조 받침에 대한 연구를 위해 완형 청자 2만 3천여 점과 굽이 남아 있는 파편까지 모두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운 내화토를 받쳤으며, 모래가 섞인 예는 한 점도 없었다. 규석 받침은 앵무문·연판문이 장식되는 특정 기종과 직구형 접시에서만 확인된다(표 10).²³

고려청자 연구에서 번조 받침은 조형적 특징과 함께 제작시기의 선후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고려 중기 청자의 번조 받침은 용운리 가마터 층위에서의 확인에 기인하여 내화토 빚음(<가>유형)→내화토 모래 빚음(<나>유형)→규석(<다>유형)으로 변화하거나,²⁴ 내화토 모래 빚음과 규석이 같은 시기에 나오는 것으로 본다.²⁵ 그러나 대섬 청자의 번조 받침은 <가>유형과 유사한 내화토이면서 일부 규석도 함께 보인다. 지금까지 내화토 빚음과 규석은 제작시기상의 선후관계가 있을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내화토 빚음이 사용된 시기에도 규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²³ 대섬 청자의 번조 받침은 주로 내화토 빚음이며, 규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거나(윤용이, 앞의 논문(2008), p. 191; 同著, 앞의 논문(2009), p. 8), 모래 섞인 내화토 빚음(내화토 모래 빚음)과 규석을 받친 것으로 본 연구가 있다(장남원, 앞의 논문(2008), pp. 185-186).

²⁴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보고서(1997), p. 227.

²⁵ <나>유형과 <다>유형은 동시대에 공존하는데 고급품은 규석 받침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일반용은 내화토 모래 빚음을 받쳐 굽는 대량생산 방식으로 제작이 분화된 것으로 보았다(張南原, 앞의 책(2006), pp. 136-138).

12세기 전반기 청자의 절대 편년 자료로는 仁宗(1122-1146) 長陵 출토품(1146 하한)이 있으며, 이 중에 〈靑磁瓜形甁〉, 〈靑磁盒〉, 〈靑磁套盒〉의 번조 받침은 내화토 빚음이고 〈靑磁有蓋筒形盞〉은 규석을 받쳐 구웠다.²⁶ 왕실에서 사용된 최고급 청자에서도 내화토 빚음과 규석이 확인되어 늦어도 12세기 중엽까지는 이 두 종류의 받침이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 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상감[癸丑]명발우〉는 거칠고 검은 모래 빚음이 사용되어 내화토를 받친 대섬 발우와는 차이를 보인다.²⁷ 이 둘은 번조 받침뿐만 아니라 조형적인 면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제작시기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⁸

대섬 청자는 조형적 특징이 〈가〉유형 청자와 가장 유사할 뿐만 아니라 번조 방법에 있어서도 내화토를 받쳤기 때문에 제작양상이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섬 청자를 통하여 〈가〉유형 청자가 제작되던 시기에도 내화토와 규석을 받친 청자가 동시기에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Ⅲ. 泰安 대섬 海底出水 高麗靑磁의 제작시기

이 장에서는 대섬 청자를 마도 1호선·군산 비안도·마도 2호선 등의 해저 유적 청자와 비교하여 제작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침몰한 선박에서 출수된 청자는 기종과 기형이 단순하지만,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청자가 적재되었기 때문에 제작시기적인 특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러 해저 유적 가운데 마도 1호선은 목간이 출수되어 대섬 청자의 비교 대상으로 적당하다. 우선 용운리 퇴적층과의 비교를 통한 대섬 청자의 조형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저 유적 청자의 기종조합·기형·문양·번조 받침을 살펴보고, 목간 내용을 파악하여 제작시기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²⁹

²⁶ 인종 장릉 출토 청자의 번조 받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도판은 이희관, 앞의 논문(2011), pp. 52-53 〈그림 43~44〉; 국립중앙박물관, 『천하제일 비색청자』(2012), pp. 130-133 〈도 140~143〉 참조.

²⁷ ‘癸丑’은 11세기 후반인 1073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최순우, 『癸丑銘靑磁大聖指鉢』, 『고고미술』 52(한국미술학회, 1964), p. 12), 상감기법을 사용하여 명문을 쓴 점과 강진 용운리 및 부안 유천리 가마터 출토품의 양상을 고려하여 12세기 후반인 1193년의 유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았다(장남원, 앞의 책(2006), pp. 299-302; 국립중앙박물관, 위의 책(2012), p. 118 〈도 129〉 참조).

²⁸ 대섬 발우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박지영, 앞의 논문(2008), pp. 200-204 참조.

²⁹ 태안 마도 1호선·태안 마도 1호선 주변 유적(마도 2008)·태안 마도 2호선·원안 해수욕장 등에서 출수된 청자 일괄은 필자가 직접 유물 정리를 담당하였다. 이미 정리를 마친 군산 십이동파도, 군산 비안도, 군산 야미도, 보령 원산도, 무안 도리포 등 다양한 해저 유적 청자를 실견하고 비교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다음으로는 대섬 출수 청자와 중국 가마터 출토 자기의 기형·문양을 비교하여, 대섬 청자와 시거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해저 출수 자기의 제작시기를 보완하여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대섬의 양질 청자와 함께 출수된 목간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의 추정을 통해 유물 연대에 대한 사료적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해저 유적 청자와의 비교

대섬 청자는 조형적 특징과 기종 조합이 <가>유형 청자와 유사한 반면, 근래 서해안 해저에서 출수된 대다수의 청자는 <나·다>유형과 같은 소위 ‘강진유형’으로 분류된다.³⁰ 이 중에서도 비안도 해저 출수 청자는 앵무문·연판문 대접과 접시, 압출양각 모란당초문 대접, 압출양각 모란절지문 대접과 접시, 연판문 통형 잔과 팽이형 잔 등으로 구성된 ‘강진유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³¹ 이와 동일한 유형은 마도 1호선(1207~1208년 이전) 출수 청자에서도 확인되며,³² 마도 1호선 주변 출수 청자에서도 보인다.³³ 마도 2호선에 실린 청자는 전체 수량이 163점에 불과하지만 앵무문·연판문 대접, 연판문 통형 잔, 팽이형 잔이 출수되었다.³⁴ 이를 통해 적어도 13세기 초반까지는 ‘강진유형’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섬 청자에서 앵무문·연판문 대접과 접시, 압출양각 모란당초문 대접은 확인되지만 ‘강진유형’의 주요 기종인 압출양각 모란절지문 대접과 접시, 연판문 통형 잔과 팽이형 잔 등은 출수되지 않았다. 대섬 청자는 비교 대상이 된 다른 해저 청자와 달리 잔보다 완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

³⁰ 張南原, 「康津유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美術史學研究』 第231號(한국미술사학회, 2001), pp. 77-100; 同著, 앞의 책(2005), pp. 199-222 주 97 참조. ‘康津類型’이라는 용어는 고려 중기 강진을 중심으로 제작된 다양한 양식적 특징을 결합한 청자군에 대해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유형에서는 연판문·앵무문 발류, 압출양각 장식, 절요 접시, 통형 잔, 팽이형 잔 등이 동반 출토되며, 그 제작시기는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중반까지로 추정하였다.

³¹ 윤용이, 『群山 飛雁島 海底出土 高麗靑瓷』,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4), pp. 162-167; 同著, 위의 논문(2008), p. 194. 비안도 유물을 12세기 후반으로 보았으나 이후 1220년대로 새로이 추정하였다.

³² 마도 1호선에서 출수된 목간·죽간에는 청자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丁卯’·‘戊辰’의 간지가 확인되었다. 간지 외에도 ‘金純永’이라는 인물이 수신자로 적혀 있는 죽찰을 통해서 물품의 선적 시기가 1207년과 1208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 1호선 수증발굴조사 보고서』(2010), pp. 503-509; 임경희, 「마도 1호선 목간의 분류와 주요 내용」, 『태안 마도 1호선 수증발굴조사 보고서』(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pp. 606-619).

³³ 필자는 1호선 주변 출수 청자가 마도 1호선 내부에서 나온 청자와는 세부적인 특징에서 차이를 보여 서로 다른 유적일 것으로 분류하였다(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위의 보고서(2010), pp. 507-509).

³⁴ 마도 2호선은 목간에 나오는 ‘李克僞郎將과 ‘大卿庾’가 庚資諒(1150~1229)임을 밝히고, 이 둘이 관직을 지낸 시기를 고려하여 적어도 1213년 이전에 난파한 선박으로 추정하였다(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 2호선 수증발굴조사 보고서』(2011), pp. 264-309; 임경희, 「마도 2호선 목간의 분류와 내용 고찰」, 『태안 마도 2호선 수증발굴조사 보고서』(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pp. 438-447).

으며 종류도 더 다양하다. ‘강진유형’에서 완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양한 크기와 문양을 가진 연판문 통형 잔과 팽이형 잔 위주로 확인된다.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은 대섬 및 다른 해저 유적에서도 보이지만, 당초문의 표현과 기형, 저경과 굽 높이, 크기, 무게 등이 다르다(표 11). 대섬 대접의 모란문은 모란 꽃봉오리가 크고 꽃잎이 장식적이다. 넝쿨은 끝이 둥글고 세밀한 잎맥까지 표현하였으며, 꽃봉오리 둘레를 에워싼 형태로 빈 공간 없이 꽉 채우고 있다(표 11-①). 비안도와 마도 1호선 주변 출수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은 문양이 서로 같아서 동일한 도범으로 제작된 청자로 추정된다. 모란 꽃봉오리의 형태가 간략하고 넝쿨 잎의 끝이 세 방향으로 갈라지게 표현되었다(표 11-②,③). 대섬 모란당초문의 넝쿨은 화려하지만 도식적인 반면, 비안도와 마도 1호선 주변 출수 모란당초문의 넝

표 11 해저 출수 압출양각모란당초문 대접 문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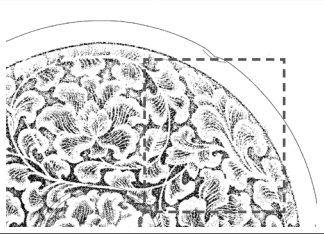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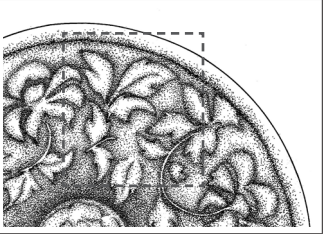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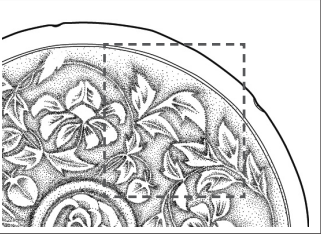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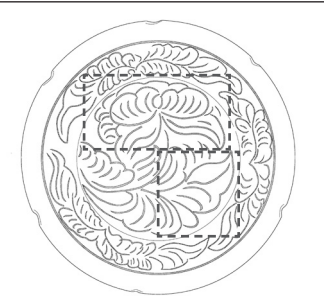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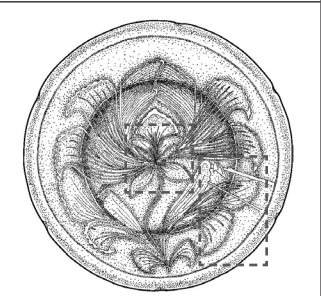
① 대섬 해저 출수	② 군산 비안도 해저 출수	③ 마도 1호선 주변 해저 출수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높이: 6.2cm, 구경: 19.8cm 굽 높이: 0.4cm, 저경: 5.3cm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높이: 7.0cm, 구경: 18.0cm 굽 높이: 1.0cm, 저경: 6.1cm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높이: 7.2cm, 구경: 18.9cm 굽 높이: 1.0cm, 저경: 6.5cm

표 12 해저 출수 모란절지문 접시 문양 비교

① 대섬 해저 출수	② 군산 비안도 해저 출수	③ 마도 1호선 주변 해저 출수
		
〈청자압출양각모란절지문화형접시〉 높이: 4.1cm, 구경: 18.3cm 저경: 4.8cm	〈청자압출양각모란절지문화형접시〉 높이: 4.6cm, 구경: 16.7cm 저경: 6.0cm	〈청자압출양각모란절지문화형접시〉 높이: 4.6cm, 구경: 17.1cm 저경: 6.4cm

쿨은 실제 모란 잎과 같은 사실적인 형태로 차이가 있다. 모란의 꽃봉오리와 넝쿨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제작시기와도 관련성이 보여 중요하다(표 16).

대섬 모란절지문 접시는 음각으로 장식된 꽃봉오리와 잎이 등글고 풍성하다(표 12-①). 반면 비안도와 마도 1호선 주변 출수 모란절지문은 압출양각 기법으로 장식되며 꽃잎과 넝쿨의 끝이 거칠게 구불거려 차이를 보인다. 꽃봉오리의 표현에서도 대섬과는 다르게 사방으로 퍼진 꽃받침이 표현된다(표 12-②,③). 대섬과 ‘강진유형’의 해저 청자에서 모란절지문은 공통으로 확인되지만 제작 기법과 형태가 다르다.

군산 비안도, 마도 1호선, 마도 1호선 주변 유적, 마도 2호선 등에서 출수된 청자는 대부분이 내화토 모래 빛음을 받쳤고, 규석이 다수 확인되었다. 대섬 청자의 번조 받침은 90% 정도가 잘 부스러지는 고운 내화토 빛음이고 규석은 양질의 자기 중에서도 소량에만 사용되어 번조받침에서 규석이 일반화되기 이전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3 해저 출수 고려 중기 청자의 특징

특징 출토지	기종별 조합 양상	번조법	특징	제작시기
태안 대섬 해저	앵무문·연판문 대접과 접시, 압출양각 모란당초문 대접·접시, 음각 모란절지문 절요 접시, 음각국화당초문 통형 잔, 무문(철화) 통형 잔과 잔뚜껑(말린 고리형·보주형 손잡이) 등	내화토, 규석	상감청자 없음. 연판문 잔· 팽이형 잔 없음. 뇌문 없음. 규석크기 작고 소량.	12세기 2/4분기 이전 *용운리 10호-II층 <가>유형 *인종 장릉 출토 유개 통형 잔(1146 이전)
군산 비안도 해저	앵무문·연판문 대접과 접시, 압출양각 모란당초문 대접, 압출양각 모란절지문 대접·절요 접시, 연판문 통형 잔, 잔뚜껑(보주형 손잡이), 팽이형 잔(뇌문) 등	내화토 모래, 규석	상감청자	12세기 3/4분기~4/4분기 *용운리 10호-II층 <나·다>유형
태안 마도 1호선 주변	앵무문·연판문 대접과 접시, 압출양각 모란당초문 대접, 압출양각 모란절지문 절요 접시, 연판문 통형 잔, 잔뚜껑(보주형 손잡이), 팽이형 잔(뇌문) 등	내화토 모래, 규석	—	12세기 3/4분기~4/4분기 *용운리 10호-II층 <나·다>유형
태안 마도 1호선	앵무문·연판문 대접과 접시, 압출양각 모란절지문 절요 접시, 연판문 통형 잔, 잔뚜껑(보주형 손잡이), 팽이형 잔(뇌문) 등	내화토 모래, 규석	상감청자	1207~1208 이전(목간) *용운리 10호-II층 <나·다>유형
태안 마도 2호선	앵무문·연판문 대접과 접시, 연판문 통형 잔, 잔뚜껑(보주형 손잡이), 팽이형 잔(뇌문) 등	내화토 모래, 규석	상감청자	1213 이전 추정(목간) *용운리 10호-II층 <나·다>유형

대섬 청자는 '강진유형' 해저 청자의 중심 기종·문양인 압출양각 모란절지문 대접과 접시, 연판문 통형 잔, 팽이형 잔, 보조 문양으로 뇌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번조 받침은 내화토빛음이 주류를 이루고 규석은 전체 수량의 1% 미만인 점, 상감청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중요하다(표 13).

2. 중국 가마터 출토품과의 비교

대섬과 그 외의 해저 유적 청자를 비교해 본 결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주로 제작되는 기형과 문양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3). 고려 중기 청자 연구에서 이와 같은 조형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중국의 北宋에서 金代에 해당하는 가마터 출토 자기를 검토하여 이러한 조형상의 변화가 언제부터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섬 청자에 보이는 중국도자와의 관련성은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³⁵

앵무문은 唐代 金銀器 등의 공예품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문양으로, 월주요에서는 北宋 早期(960~1022)에 해당하는 시기부터 음각으로 시문되기 시작하였다.³⁶ 앵무문을 소재로 한 문양은 다른 가마터에서도 보이지만, 앵무새의 머리와 꼬리가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독창적인 구도는 현재 越窯에서만 확인되고 있다(표 14-②).³⁷ 寺龍口 窯址에서 출토된 앵무문은 기종에 상관 없이 내저면에 시문되며, 대접의 측사면에 앵무문을 배치한 고려청자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마리의 앵무새가 반시계 방향으로 서로를 향해 들고 있는 모습은 유사성을 보인다(표 14-①,②). 越窯 앵무문 대접은 紀年銘이 확인되어 적어도 10세기 후반에는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⁸

寺龍口 窯址에서 5기(1078~1127)까지 확인된 앵무새는 모두 둥근 머리에 짧은 목을 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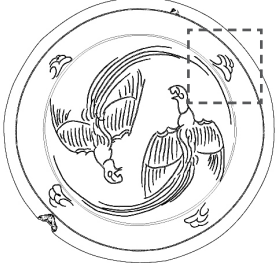


³⁵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고려청자와 宋代 耀州窯와의 관계가 부각되었다. 고려청자와 중국도자의 관계를 다룬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鄭信玉, 「高麗 前半期 瓷器에 나타난 中國 北方 陶瓷의 影響」(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同著, 「11세기 말-12세기 전반 高麗靑瓷에 보이는 中國陶瓷의 影響」, 『美術史學』第21號(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7), pp. 41-85; 任眞娥, 「高麗靑磁에 보이는 北宋·遼代 磁器의 影響」(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朴芝英, 「高麗 陽刻靑磁의 性格」, 『강좌 미술사』 29호(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7), pp. 45-86; 장남원, 「10~12세기 고려와 遼·金도자의 교류」, 『美術史學』第23號(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9), pp. 171-196.

³⁶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北京: 文物出版社, 2002); 鄭嘉勳, 「宋代越窯刻劃花裝飾工藝淺析—以碗·盤爲例」,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第5輯(杭州: 杭州出版社, 2002), pp. 107-108. 鄭嘉勳 논문의 편년 설정과 문양 연구는 寺龍口 窯址의 발굴 성과에 의거하고 있다.

³⁷ 鄭嘉勳, 위의 논문(2002), p. 108.

³⁸ 林士民, 『靑瓷與越窯』(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p. 267; 劉濤, 『宋遼金紀年瓷器』(北京: 文物出版社, 2004), p. 81.

표 14 대섬 출수와 월요 출토 앵무문·운초문 비교

① 대섬 해저 출수	② 寺龍口窯址 출토	③ 寺龍口窯址 출토
		
<p>〈청자음각앵무문접시〉 높이: 3.9cm, 구경: 16.5cm 저경: 4.7cm</p>	<p>〈靑磁劃花鸚鵡文盤〉 높이: 5.0cm, 구경: 17.8cm 저경: 10.2cm, 北宋 早期(960~1022)</p>	<p>〈靑磁劃花雲草文盤〉 높이: 3.5cm, 구경: 13.2cm 저경: 6.4cm, 北宋 早期(960~1022)</p>

며, 길게 늘어뜨린 꼬리를 가지고 있다(표 14-②).³⁹ 대섬 대접과 접시에 장식된 앵무새는 짧은 목과 긴 목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 전형성을 보이지 않는다(표 14-①, 표 2-①). 용운리 10호-II층 <나·다>유형 출토 청자와 부안 및 기타 지역, 그리고 해저 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앵무새는 대부분 목이 긴 형태이다. 그러나 唐代 금은기와 월요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앵무새는 모두 짧은 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양이 고려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2).

越窯는 北宋 晩期(1078~1127)가 되면 앵무문을 제외한 다른 동물 소재 문양은 거의 사라진다. 그리고 이를 대신하여 식물 화훼 소재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대섬 앵무문의 보조 문양으로 나타나는 雲草文이 북송 만기 월요에서 유행한다.⁴⁰ 대섬 앵무문의 보조 문양으로 사용된 雲文은 3단으로 층을 이룬 머리 부분과 왼쪽으로 치우친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섬 운문은 전체적으로 越窯의 운초문과 생김새가 유사하다(표 14-①, ③). 북송 만기부터 동물 소재들은 사라지고 운초문이 유행하는 것으로 볼 때, 대섬 청자 역시 이와 가까운 시기에 중국에서 유행하던 문양을 받아들여 차용하고 서로 결합하여 장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¹

대섬 청자는 越窯의 앵무문을 제외한 대부분 문양과 장식기법에서 宋代 耀州窯의 영향이 강

³⁹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위의 보고서(2002), p. 46, p. 64, p. 82, pp. 334~352에 의하면, 寺龍口窯址에서 음각 앵무문이 출토된 T6⑤, T6⑥, T6⑦는 층위상 제3기(960~1022)에 해당하며 제5기(1078~1127)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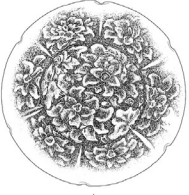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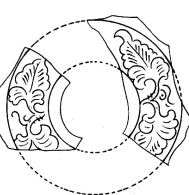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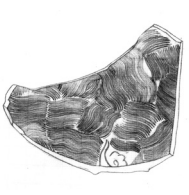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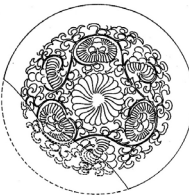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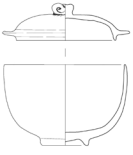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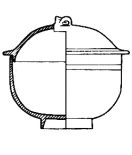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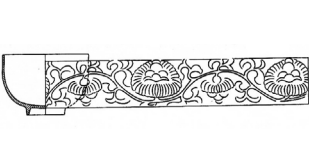
⁴⁰ 鄭嘉勳, 앞의 논문(2002), p. 110. 월주요에서 北宋 早期(960~1022)부터 나타나는 동물문은 나비문, 앵무문, 쌍봉문, 용문, 화조문, 원앙문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길상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⁴¹ 대섬에서 출수된 모든 앵무문에는 월요 운초문 형태의 운문이 동반 시문된다. 앵무문이나 운문이 정형화되거나 문양이 거의 흐트러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개시 단계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하게 보인다. 대섬 출수 <청자음각모란당초문대접>,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접시>, <청자음각엽문접시>, <청자압출양각국화당초문접시>, <청자압출양각국화당초문완>, <청자음각국화당초문완>, <청자유개통형잔>, <청자음각국화당초문통형잔> 등은 기형과 문양에서 전반적인 영향관계가 가장 잘 확인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표 15-①).

대섬 대접과 접시에서 주로 보이는 문양은 모란으로 두 송이의 꽃이 서로 반대편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된다. 대접에는 모란꽃 잎을 둥글고 풍성하게 표현하고 안에 얇은 선을 그어 화려하게 장식하였다(표 15-①-1). 대섬 절요형 접시에 장식된 모란문은 내저면에 서로 마주 보는 모란당초문을 가득 채웠고, 측사면에도 공간을 구획하여 모란 꽃송이를 빈 공간 없이 배치하였다(표 15-①-2). 대섬 대접과 접시에 보이는 모란문은 소재의 구성과 배치, 꽃봉오리와 넝쿨의 생김새

표 15 대섬 해저 출수 청자와 요주요 출토 청자 문양 비교

① 대섬 해저 출수		② 송대 요주요	
 1	 2	 1	 2
 3	 4	 3	 4
 5	 6	 5	 6
 7	 8	 7	 8

등의 세부 표현이 요주요의 모란문과 유사하다(표 15-②-1, 2).

대섬에서는 葉文이 시문된 대접과 접시가 다량으로 확인되었다(표 15-①-3). 耀州窯 출토품 중에는 병의 견부에서 이러한 문양이 확인되어, 기종의 차이는 있지만 엽문의 구성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표 15-②-3).

대섬 청자에 장식된 국화당초문은 중국에서는 보상화문으로도 불리는 문양으로 요주요 청자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꽃봉오리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표 15-①-5, 표 15-②-5). 대섬 국화당초문은 시문 상태가 양호하고 접시·완·잔 등의 주요 기종에서 다양하게 확인되어 당시에 활발하게 제작되던 대표적인 문양으로 생각된다(표 15-①-4,5,8). 대섬 반구형 완에 시문된 국화당초문은 통형 잔에 시문된 것에 비해 매우 정교하며 명확한 문양을 가지고 있다(표 8). 완의 외면에는 국화당초문을 시문하고 내면에는 파도문을, 중심에는 꽃 모양의 泡沫을 장식하였다(표 15-①-6). 내면에 시문된 파도문은 매우 얇은 선을 사용하여 촘촘하게 시문하고 있는데, 이는 요주요에서 확인된 집선문과 매우 유사하다(표 15-②-6). 이와 같은 요주요 국화당초문 완과 잔이 활발하게 제작되는 시기는 北宋中·晩期인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반(1023~1127)까지이다.⁴²

대섬에서 확인된 유개 통형 잔은 높이가 낮고 구경이 넓은 형태로, 문양은 없거나 외면에 국화당초문을 음각하였다. 잔 뚜껑에는 나선형으로 말린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표 15-①-7). 요주요에서 제작된 유개 통형 잔은 대섬과 용운리 10호-II층 <가>유형과도 유사하여 그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표 15-②-7).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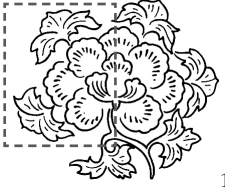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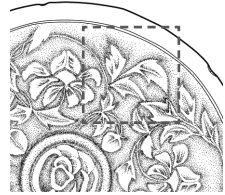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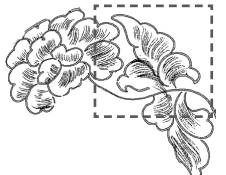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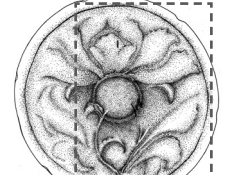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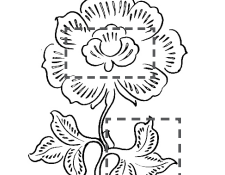


定窯에서 압출양각 기법이 사용되는 시기는 北宋晩期 경이지만,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金代이다. 대섬 청자에서는 定窯의 특징적인 기형과 문양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12세기 전반에는 耀州窯 타입의 문양이 다양하게 보이고, 12세기 후반에는 北宋晩期부터 金代 定窯와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⁴⁴ 비안도 출수 압출양각 모란당초문의 넝쿨은 끝이 세 방향으로 갈라져 있으며 그 사이사이에 잎맥을 표현하였는데, 금대 정요 모란당초문 넝쿨의 잎과 매우 유사하게 장식되어 주목된다(표 16-④-1). 정요 타입의 모란절지문은 꽃잎과 잎사귀의 끝이 톱날처럼 구불거리고 꽃받침이 사방으로 퍼져있는 형태이다(표 16-④-2,3). 고려 중기 청자 중에서는 비안도 해저 청자가 금대 정요 자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표 16-③④).

⁴² 陕西省考古研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耀州窯址』(北京: 文物出版社, 1998), pp. 132-134. 요주요지 출토 유물에 대한 편년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지만, 조형적인 특징과 제작 중심시기와 하한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⁴³ 김윤정, 앞의 논문(2009), pp. 126-134.

⁴⁴ 박지영, 앞의 논문(2007), pp. 66-74. 압출양각청자에서 요주요의 영향은 12세기 중반 이후부터 거의 보이지 않고 북송 만기에서부터 금대 정요의 영향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하여, 금대 정요 자기의 영향을 언급하였다. 1127년부터 1142년까지는 耀州窯 편년상 南宋期에 해당하며, 점차 쇠퇴해가는 시기로 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

표 16 고려와 중국의 모란문 문양 비교

① 태안대섬	② 송대 요주요	③ 군산비안도	④ 금대 정요
 1	 1	 1	 1
 2	 2	 2	 2
 3	 3	 3	 3

정요에서 확인된 국화당초문 완 도범(1184)은 앞서 살펴본 요주요 타입의 국화당초문 완과 꽃봉오리가 유사한 반면, 보조 문양으로 구연부에 뇌문대를 두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섬 청자와는 제작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⁵ 기존의 연구에서 앞형 국화당초문 완은 용운리 10호-II층 <다>유형에서부터 출토되어 12세기 후반부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다.⁴⁶ 대섬에서 확인된 완을 통해 앞형 국화당초문은 용운리 가마터 층위에서 확인된 것보다 이른 <가>유형부터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표 15-①-5).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대섬 청자는 월요 북송만기의 특징이 보이며 특히 문양의 구도나 소재에서 北宋中·晩期(1023~1127) 요주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요주요 압출양각 자기의 생산이 北宋晩期(1086~1127)가 지나면서 둔화되고 요장이 활발히 운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섬 청자는 이와 가까운 시간 내에 영향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⁴⁵ 시기적으로 볼 때 요주요보다 조금 더 늦게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定窯는 여러 개의 기년명 도범이 출토되어 편년에 참고가 되고 있다. 定窯에서 출토된 기년명 도범은 劉濤, 앞의 책(2004), pp. 11-12 참조.

⁴⁶ 국화당초문의 닝쿨에 주목하여 고려형은 <가>유형에서부터 제작이 시작되고, 대섬 청자에 보이는 앞형은 12세기 후반부터 생산되는 것으로 보았다(박지영, 앞의 논문(2007), pp. 52-54).

3. 목간 내용과 청자의 제작시기

대섬 출수 청자에서 주목되는 점은 목간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목간 내용의 검토를 통해 대섬 청자의 제작시기 추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崔大卿宅上’ 목간이 출수된 구역에서 확인된 발우, 연판문 대접·접시, 화문 합 등은 다른 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⁴⁷ 연판문 대접 30여 점은 규석을 받쳐 제작되었는데, 이는 대섬 청자 전체 수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량이다. 양질의 청자가 소량 출수되는 것은 주문자에 따라 기종과 번법을 달리하면서 도자기를 생산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양질 청자와 함께 출수된 목간 또한 다른 목간에 비해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육안으로도 正字體의 목흔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청자를 주문 제작할 수 있었던 고위 관직자 ‘최대경’이라는 인물은 누구일까.

앞 장에서 살펴본 대섬 출수 청자의 제작시기에 ‘大卿’의 벼슬에 있으면서 최씨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인물은 崔湧(?~1119)이 유일하다.⁴⁸ 그는 고려 중기의 문신으로 딸이 예종의 후궁에 입선(1121)되는 과정에서 그의 사후임에도 불구하고 ‘大卿’이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⁴⁹ 그에 대한 기록이 소략하여 생전의 관직은 알 수 없지만, 인종 22년(1144) 종2품 참지정사로 추증되기 때문에 적어도 1144년 이전까지는 대경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⁵⁰

한편, 대섬에서는 총 167점의 청자발우가 3~4세트의 구성으로 출수되었다. 이는 다른 해저 유적에서는 확인된 예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량이며 질적인 면에서도 매우 뛰어나다. 발우의 특성상 주문자는 사찰 혹은 승려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대경 최용의 장남인 崔俊流는 출가하여 1148년에는 弘護寺의 주지로 활동하였을 정도로 명망있는 승려였다.⁵¹ 따라서 대섬 발우

⁴⁷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2009), p. 88, pp. 90-91, pp. 195-197. 최대경 목간은 발굴 구역의 중앙으로부터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수습되었으며, 양질의 청자도 이와 가까운 E7-E10 구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실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중 발굴은 직접 조사를 진행한 양순석 학예사가 보충 설명과 사진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⁴⁸ ‘大卿’은 『高麗史』 白官志에는 나타나지 않는 관직이지만 『高麗史』와 『高麗史節要』 및 개별 인물의 묘지명을 통해서 그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卿은 고려 관계에서 정3품 또는 종3품에 해당하며, 少卿은 정4품 또는 종4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소경을 대칭한 경을 대경이라 불렀을 것으로 보았다(임경희,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 『고려청자 보물선 강진, 태안, 그리고...』(강진청자박물관·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8), pp. 180-181).

⁴⁹ 『高麗史』 卷14, 世家14 睿宗 16年, “辛丑, 十六年 春正月 丁酉… 今將以辰韓公長女 大卿崔湧季女備之內職有可宜, …”

⁵⁰ 최용의 家系는 그의 부인인 江陵郡大夫人 金氏 묘지명, 셋째 아들과 처인 崔允儀 묘지명, 光陽郡夫人 金氏 묘지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최용의 증조부는 해동공자로 알려진 문헌공 최충이고, 그의 큰아버지인 최사후(崔思誦)는 이자겸(李資謙)의 장인이며 장인인 김상기 또한 이자겸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다. 최용의 친인척은 모두 공신이거나 왕실과 관련되어 최용의 가문은 당시의 名門大家였다.

⁵¹ 弘護寺는 선종 10년(1093)에 세워진 화엄종 사찰로 초대 주지는 禪雲(1031~1104)이다. 그는 大覺國師 의천(1055~1101)에게도 영향을 미친 인물로 추정되며 최준류는 삼중대사의 승계를 가지고 주지직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民族社, 1998), pp. 161-169).

가 반드시 최준류에 의해 주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대경택상’ 목간의 출수 구역에서 대량의 발우가 공반 출수된 점은 대경 최용 집안이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목간의 주인공인 ‘최대경’은 대경 최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청자의 주문 시기는 그가 대경의 관직을 받았을 1121년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참지정사에 추증되는 1144년 이전으로 볼 수 있다.⁵²

대섬 목간 가운데 미판독으로 남아 있던 자료가 해독되면서 ‘辛亥’로 추정되는 간지가 새롭게 확인되었다.⁵³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신해는 1131년 또는 1191년으로 추정되는데,⁵⁴ 대섬 청자의 제작양상으로 볼 때, 1131년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대경 최용에 대한 문헌 기록과 1131년으로 추정되는 목간의 간지를 통하여 대섬 청자의 제작 시기는 2/4분기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대섬 해저에서 발견된 목간은 유물의 분석을 통해 밝혀낸 제작 연대를 문헌사적인 증거로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대섬 청자의 성격을 사회·경제·문화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대섬 청자의 분석을 통해 고려 중기에 제작된 청자의 양상을 살피고 그 제작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대섬 청자를 용운리 10호 가마터의 퇴적 층위별 출토 청자와 비교·분석한 결과 10호-Ⅱ층 <가>유형과 기형·문양·변조방법·굽형태·크기 등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섬 청자는 10호-Ⅱ층 <가>유형에 포함되는 조형적인 특징을 대부분 포함하

⁵² 대섬 청자는 왕실용 최상급 청자는 아니지만, ‘최대경’ 목간과 관련된 청자는 특별히 주문하여 제작한 양질의 고급품이다. 목간 대부분에는 “耽津□在京陞正仁守戶付砂器八十”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내는 사람과 물건의 수량, 그리고 받는 사람까지 기록했지만, 최대경 목간은 수취자만 표기하여 차이가 있다(임경희, 『태안선 목간의 새로운 판독-발굴보고서를 보완하며-』, 『해양문화재』 제4호(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pp. 308-332). 그러므로 ‘최대경’은 정확한 이름이 없이도 물건이 배달될 정도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집안의 인물일 것이다.

⁵³ 임경희, 앞의 논문(2011), pp. 322-323.

⁵⁴ 명문을 ‘辛亥’로도 볼 수 있으나 필자는 ‘신해’로 판독하였다. 신미는 1151년 또는 1211년으로 추정되는데, 인종 장릉에서 출토된 잔보다 대섬 통형 잔의 제작시기가 더 빠르다는 점에서 1151년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1211년의 경우는 앞에서 대섬 청자와 마도 1호선 청자(1207~1208년 이전)의 조형적 차이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다. 더욱이 목간 판독자인 문화재청 임경희 학에서 역시 ‘신해’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여 필자도 그 견해에 동의하였다.

면서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기형과 문양을 가진 청자가 다양하게 확인되어 주목된다. 대섬 청자의 번조 받침은 잘 부스러지는 고운 내화토 빚음과 규석이 함께 사용되어 10호-II층 <가>유형에서도 규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섬 청자와 비안도·마도 1호선(1207~1208 이전)·마도 1호선 주변·마도 2호선 유적 등에서 확인된 다양한 해저 청자의 기종간 조합관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섬 청자의 문양 소재·형태·구성 등에 보이는 특징은 중국의 宋代 中·晩期에 해당하는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초반 요주요에서 제작된 청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주요는 북송 말기에 이르면 요업이 정지되므로 대섬 청자는 12세기 1/4분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12세기 3/4분기 이후에는 금대 정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모란절지문과 뇌문을 장식한 팽이형 잔, 통형 잔에 연판문을 장식한 10호-II층 <나·다>유형의 청자가 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12세기 중반에 고려청자에 보이는 중국 자기의 영향이 요주요에서 정요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섬 출수 청자는 요주요와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보이는 12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대섬 출수 목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 결과 ‘최대경’이라는 인물을 ‘최용’으로 보았고, 그의 장남이 개성에 위치한 사찰의 승려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로 보아 대섬 발우 및 규석 받침을 사용한 양질의 청자가 왕실의 친인척과 같은 고려의 상류계층에 수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섬 출수 청자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진 용운리 층위별 출토품, ‘강진유형’으로 대표되는 기타 해저 유적 출수 청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대섬 청자의 상대편년을 시도하였다. 월주요, 요주요, 정요로 대표되는 중국 요장과의 비교 및 문헌사적 검토를 통하여 대섬 출수 청자의 제작연대를 다각적인 시각으로 밝혀내었다.

또한 지금까지 고려청자 상대편년의 기준으로 여겨졌던 번조 받침의 성격에 대한 재고를 시도하였고, 12세기 고려청자에 영향을 미친 중국 요장이 요주요에서 정요로 바뀌는 양상을 명확히 밝혀 내어 고려 중기 청자 제작 양상을 파악하는데 일조하였다. 차후 추가적인 해저 유물의 발견을 통하여 대섬 출수 청자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지고 나아가 고려 중기 청자의 면모가 뚜렷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_태안 대섬(Taean's Daeseom Island), 해저 출수 고려청자(Goryeo Celadon Excavated from the Sea), 耽津(Tamjin[現 康津 now Gangjin]), 開京(Gaegyeong[現 開城 now Gaeseong]), 耀州窯(Yaoyzhou Kiln), 龍雲里窯址(Yongun-ri Kiln)

■ 투고일 2013년 5월 21일 | 심사개시일 2013년 8월 8일 |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11일 ■

참고문헌

1. 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墓誌銘集成』, 『宣和奉使高麗圖經』

2. 단행본

강경숙,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_____,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 2005.

_____, 『韓國陶磁史』, 예경, 2012.

방병선, 『중국도자사 연구』, 景仁文化史, 2012.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張南原, 『고려중기 청자 연구』, 혜안, 2007.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劉 濤, 『宋遼金紀年瓷器』, 北京: 文物出版社, 2004.

穆 青, 『定瓷藝術』,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2.

王 芬, 『耀州窯陶瓷』, 西安: 陝西科學技術出版社, 2000.

林士民, 『青瓷與越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陳文增, 『定窯研究』, 北京: 華文出版社, 2003.

禚振西·杜文 著, 北村永 訳, 『耀州窯瓷』, 東京: 二支社, 2004.

3. 도록

강진청자박물관, 『강진 고려청자 500년』강진 청자요지 발굴유물 특별전, 2006.

_____, 『강진청자박물관 名品圖錄』, 2007.

_____,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 귀향』, 2011.

_____, 『강진청자의 교류와 소통』, 2012.

_____, 『강진 고려청자의 최근 발굴조사 성과 특별전』강진청자박물관 학술총서 17, 2013.

경기도자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바다 속의 고려청자』, 2010.

국립광주박물관·강진군, 『남도문화전Ⅲ-康津』, 2012.

국립광주박물관, 『천년의 세월, 그 빛, 날다』강진 삼흥리 가마터 출토유물전, 2006.

-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고려청자 다시 찾은 비취색 꿈』, 2006.
- 國立中央博物館, 『中國陶磁』, 2007.
- _____, 『고려 왕실의 도자기』, 2008.
- _____, 『천하제일 비색청자』, 2012.
- 國立海洋遺物展示館, 『고려청자 보물선 강진, 태안, 그리고...』, 2007.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강진군, 『고려청자 보물선과 강진』, 2009.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2009.
- _____, 『800년 전의 타임캡슐』 태안마도 수중문화재 발굴성과, 2010.
- _____, 『바닷속 유물, 빛을 보다』 수중발굴 신고유물, 2010.
- _____, 『매병 그리고 준 향기를 담은 그릇』, 2013.
- 日本國立歷史民俗博物館, 『東アジア中世海道』海商·港·沈沒船, 2005.
- 陝西族遊出版社, 『耀州窯』, 1992.

4. 보고서

- 國立中央博物館,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 圖版編』, 1996.
- _____,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 本文編』, 1997.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高麗靑磁 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도판』, 2009.
- _____, 『高麗靑磁 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본문』, 2009.
- _____, 『태안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0.
- _____, 『태안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1.
- 國立海洋遺物展示館·전라북도,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 2004.
- 海淵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 陝西省考古研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耀州窯』, 北京: 文物出版社, 1998.
-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 北京: 文物出版社, 2002.

5. 논문

- 姜敬淑, 「고려전기 도자의 대중교섭」, 『高麗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4.
- 김애경, 「태안 대섬 출토 고려청자의 현황과 성격」, 『유적 출토 고려청자-고려청자의 생산·유통·소비』 제7회 경기도자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경기도자박물관, 2009.
- _____, 「韓國 水中 出土 陶磁의 現況과 性格」, 『李秉昌博士記念 韓國陶磁研究報告』 IV, 大阪: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2010.
- 김윤정, 「고려 12세기 靑磁有蓋筒形盞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 양상 - 群山 飛雁島 해저 인양품을 중심으로 -」,

- 『해양문화재』 제2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 김현정, 「비안도 청자와 부안」, 『해양문화재』 제2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 나선화, 「태안 대섬 침몰선 청자 출토조사의 성격과 의미」,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보고서』 본문편,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 朴芝英, 「高麗陽刻靑磁의 性格」, 『강좌 미술사』 29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7.
- _____, 「고려시대의 청자발우-태안 대섬 출토품을 중심으로-」, 『고려청자 보물선 강진, 태안, 그리고...』, 강진청자박물관·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8.
- 박한남, 「12세기 麗金貿易에 대한 검토」, 『대동문화연구』 제3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 윤용이, 「群山 飛雁島 海底出土 高麗靑瓷」,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4.
- _____, 「태안 대섬 해저 출토 고려청자의 성격」, 『고려청자 보물선 강진, 태안, 그리고...』, 강진청자박물관·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8.
- _____, 「고려청자의 생산과 소비, 향로」, 『국제학술심포지엄 청자보물선 뱃길 재현 기념』, 강진군, 2009.
- 이희관, 「태안 대섬 해저인양 靑瓷火爐形香爐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해양문화재』 제4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 李鍾玟, 「泰安 馬島 해저 출토품으로 본 고려 중기 청자의 편년문제」, 『이화사학연구』 Vol.42, 이화사학연구소, 2011.
- _____, 「고려시대 자기의 해상운송과 출수 양상」, 『韓·中 水中文化遺産 發掘現況과 保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中國國家博物館, 2013.
- 임경희·최연식,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의 현황과 내용」 제2회 학술대회, 한국목간학회, 2007.
- _____,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의 현황과 내용」, 『목간과 문자』 창간호, 한국목간학회, 2008.
- 임경희, 「태안선 목간의 새로운 판독-발굴보고서를 보완하며-」, 『해양문화재』 제4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 _____, 「마도 1호선 목간의 분류와 주요 내용」, 『태안 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 _____, 「마도 2호선 목간의 분류와 내용 고찰」, 『태안 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 任眞娥, 「高麗靑磁에 보이는 北宋·遼代 磁器의 影響」,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_____, 「태안 대섬 출토 음각앵무문·양각연판문 대접·접시의 특징과 제작시기 고찰」, 『해양문화재』 제4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 張南原, 「康津유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美術史學研究』 第231號, 한국미술사학회, 2001.
- _____, 「高麗 中期 壓出陽刻 靑瓷의 性格」, 『美術史學研究』 第242·243號, 한국미술사학회, 2004.
- _____, 「번조(燔造)받침과 청자의 상관관계-고려 중기 강진과 그 외 지역을 중심으로」,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2권, 사회평론, 2006.

- _____, 『漕運과 도자생산, 그리고 유통: 海底弓揚 고려도자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2호, 미술사연구회, 2008.
- _____, 『해저인양 청자로 본 고려도자의 제작과 유통』, 『고려 중기 청자제작의 시대적 고찰』, 강진청자박물관, 2008.
- _____, 『10~12세기 고려와 遼·金도자의 교류』, 『美術史學』 第23號,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9.
- 鄭信玉, 『高麗 前半期 瓷器에 나타난 中國 北方 陶瓷의 影響』,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_____, 『11세기 말~12세기 전반 高麗靑瓷에 보이는 中國陶瓷의 影響』, 『美術史學』 第21號,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7.
- 조은정, 『泰安 海底弓揚 靑磁의 性格과 製作時期』, 『高麗靑磁 寶物船과 康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강진군, 2009.
- _____, 『태안 대섬 해저인양 소형접시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양상』, 『해양문화재』 제4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 최순우, 『癸丑銘靑磁大聖指鉢』, 『고고미술』 52, 한국미술사학회, 1964.
- 한성욱, 『高麗 'ㄱ'形瓷器의 出土 現況과 機能 檢討』, 『해양문화재』 제4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 鄭嘉勳, 『宋代越窯刻劃花裝飾工藝淺析—以碗·盤爲例』,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 第5輯, 杭州: 杭州出版社, 2002.

국문초록

12세기는 고려청자가 제작기술과 조형에서 뛰어난 양상을 보이며 다양한 비색청자를 생산하던 시기로 중요하다. 그러나 청자와 관련된 절대편년 자료와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전개 양상을 고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근래 해저에서는 목간 및 죽간이 청자와 동반 출수되어 생산과 유통, 제작시기의 추론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물의 공반 관계를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태안 대섬 해저 출수 청자를 시작으로 연차적인 발굴 조사가 진행된 태안 마도 해역에서는 고려청자와 함께 그 생산지, 소비주체, 유통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명문자료가 확인되었다. 대섬 해저에서 출수된 2만 3천여 점의 高麗靑磁는 일정 기간 강진에서 생산되어 개경으로 이동하던 도중 침몰한 배에 선적되었던 유물이다.

대섬 청자를 용운리 10호 가마터의 퇴적 층위별 출토 청자와 비교·분석한 결과, 기형·문양·번조방법·굽 형태 등에서 전체적으로 10호-II층 <가>유형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섬 청자에서는 10호-II층 <가>유형에 포함되는 조형적인 특징을 대부분 포함하면서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기형과 문양을 가진 청자가 다양하게 확인되어 주목된다. 특히 기존에 <나, 다>유형과의 친연성으로 주목받았던 앵무·연판문이 장식된 대접과 접시는 오히려 <가>유형과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섬 청자의 번조 받침은 잘 부스러지는 고운 내화토 빛음과 규석이 함께 사용되어 10호-II층 <가>유형에서도 규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섬 청자와 ‘康津類型’으로 대표되는 대섬 이외 해저 유적 출토 청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대섬 청자의 상대편년을 시도하였다. 대섬에서는 ‘강진유형’의 중심 기종과 문양인 압출양각 모란절지문 대접과 접시, 연판문 통형 잔, 팽이형 잔, 보조 문양으로 뇌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번조 받침은 내화토 빛음이 주를 이루고 규석은 전체 수량의 1% 미만이며 상감청자는 출수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대섬 이외의 해저 유적 청자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중국도자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대섬 청자의 문양 소재·형태·구성 등에서 중국 宋代 中晩期(11세기 후반~12세기) 越窯 및 耀州窯의 영향이 드러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요요의 영향이 강하게 간취되어, 마도 1호선 등 대섬 이외 해저 유적 청자에서 定窯의 영향이 감지되는 양상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보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목간의 명문을 분석하여 ‘崔大卿’이 고려왕실 및 불교와 관련된 ‘崔湧(?~1119)’이라는 인물로, 이 명문이 사용될 수 있는 시기는 1144년 이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최근 판독된 간지 ‘辛亥’는 1131년으로 보았다. 이처럼 대섬 청자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그 제작시기는 12세기 2/4분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Abstract

A Study of Goryeo Celadon Excavated from the Sea off Tae'an's Daeseom Island

Choi Myeong-ji *

Some 23,000 Goryeo celadon wares have been salvaged from the waters around Tae'an's Daeseom Island, along with various wooden pieces containing handwritten letters, such as “崔大卿” (pronounced “Choi Dae-gyeong” – “Choi” is a family name and : Dae-gyeong: is the name of a government post) and “辛亥” (pronounced “Sinhae” – referring to the year 1131). It is thought that these items were part of the cargo of a ship sailing from Tamjin (now Gangjin) to Gaegyeong (now Gaeseong). They have come under the spotlight as an important material containing written records about the purchaser of the celadon ware items and the approximate date of the order placed for them.

This study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concerning the production of celadon wares found at Daeseom Island. First, Celadon wares excavated from waters around Daeseom Island were found to be comparable to those unearthed from the historic site in <Ga> type of No. 10-II floor in Yongun-ri kiln site. This indicates that the artifacts found at the Daeseom Island date back to a relatively earlier period than those excavated from other sea ruins that are comparable with <Na, Da> type of No. 10-II floor in Yongun-ri kiln site, i.e. the early 12th century, under the influence of the Northern Song Dynasty's Yaozhou Kiln (which was confirmed by comparing them with objects unearthed from kiln sites in China).

Lastly, it was ascertained that the personal name marked on salvaged wooden pieces

* Curator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fers to Choi Yong (?~1119), a high-ranked official associated with the royal family of Goryeo and a noble Buddhist monk, and that the salvaged items were produced in the first half of the 12th century. After considering all the evidence,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celadon wares excavated from Taean's Daeseom Island were produced in the second quarter of the 12th century.